



의정부주보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녀 홍금주 페르페투아 (1804-1839)



서울 변두리에서 태어난 홍금주는 열 살 때 입교하였으나, 열다섯 살에 외교인과 혼인한 뒤로 냉담하였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뒤에 교우들의 권면으로 다시 신앙을 찾고, 집을 떠나와 교우들의 집에 살며 가장 천한 일을 맡아 하였다. 특히 병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쏟았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났을 때, 홍금주는 교우 최 필립보의 집에 있다가 그의 제수와 함께 체포되었다. 이어 포청과 형조에서 고문을 받은 뒤 사형을 선고받았다. 옥살이 중 서너 차례 염병에 걸려 고생하였으나 조금이라도 낫기만 하면 다른 교우들의 상처를 닦아 주는 등 함께 갇힌 교우들에게 친누이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 이렇게 옥중에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던 그는 옥살이 6개월 만인 9월 26일, 8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36세였다.

성화_강현주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3

연중 제33주일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소리 주보 ▶



입당송 예레 29, 11. 12. 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제1독서 잠언 31, 10-13. 19-20. 30-31

화답송 시편 128(127), 1-2. 3. 4-5 (◎ 1ㄱ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밭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2독서 1테살 5, 1-6

복음 환호송 요한 15, 4. 5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음 마태 25, 14-30 (또는 25, 14-15. 19-21)

영성체송 시편 73(72), 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여론네의 아들 칼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던 시절 ‘칼렘’이 상속재산으로 받은 성읍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인 칼렘의 이름 뜻은 ‘개’입니다. 사람 이름에 ‘개’를 붙이는 일이 흔치 않고 성경에서도 개가 그리 긍정적인 이미지로 등장하지 않기에(시편 22,17; 마태 7,6 등) 그 이름이 무척 낯설지만, 이는 그가 지닌 ‘충성스러움’을 반영하려 한 것 같습니다.

칼렘은 이집트 탈출 뒤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파견한 정찰대의 일원이었습니다.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열두 명의 대원(민수 13,2)은 가나안이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만, 그곳 주민들이 힘센 나팔족이라며 백성의 의기를 꺾어 놓습니다(25-33절). 이때 칼렘과 여호수아가 나서 계획대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고 설득하지만, 백성은 정찰대 대다수에 부화뇌동하여 가나안 진입을 포기합니다. 그 결과, 주님의 약속을 불신한 이집트 탈출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을 운명을 맞게 되고(14,34-35), 칼렘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신명 1,38) 칼렘은 상속재산을 차지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민수 14,24; 신명 1,36).

칼렘이 받은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은 여호 14-15장에 나오는데, 특히 여호수아기에서는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해 서술할 때(14,6-19,51) 칼렘의 이야기를 맨 앞에 놓



헤브론 시내 전경



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하느님의 약속대로 땅을 차지했음을 밝히고, 그를 백성이 지녀야 할 모습의 모범으로 제시하려 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칼렘은 장장 사십오 년 동안(14,10)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려 약속의 실현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여호 14,2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만, 칼렘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땅을 청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을 획득했습니다. 이미 아나족이 살고 있던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차지한 것입니다(12절). 그런데 이런 칼렘이 본래 이방인이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칼렘은 여호 14,6,14 등에서 “크나즈인”으로 소개됩니다. 크나즈인은 예부터 가나안에 살던 민족인데(창세 15,19) 에돔, 곧 에사우의 후손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창세 36,11.15.42; 1역대 1,36.53). 이들 가운데 칼렘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로 합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출신 배경에도 칼렘은 하느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주인을 따르는 개의 충성스러움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가히 성조 아브라함도 능가하는 믿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백 살이 될 때까지 자식을 두지 못하자 아들을 약속하신 하느님 말씀에 웃으며 이스마엘이라도 오래 살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창세 17,17-18). 헤브론에서는 이방인이던 칼렘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이자 백성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과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暗雲)들’ ⑩
-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의 부재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과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지난주에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사회·문화적 추세로서 ‘사람을 내다 버리는 세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불충분하게 보편적인 인권들’(22-24항)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행동·생활양식(문화)은 사람과 사회와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 곧 인간관과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귀한 존재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행동 양식과 생활양식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성,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과 지위 또는 장애 같은 조건에 따라 인간의 귀함이 다르다고 믿는다면, 과연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이게 될까요?

인간 사회는 여러 구성 분야와 요소가 상호 관계를 맺는 하나의 유기적 관계망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때로 여러 부품으로 조립된 기계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각자도생의 터전으로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때 저마다의 이해 수준에 따라 행동 양식과 생활양식이 달라집니다. 각자 고유의 역량으로 공동선 실현을 지향하거나, 일종의 숙명론을 따르거나, 아니면 무한 경쟁의 승자독식을 위한 삶에 몰두하게 됩니다.

인간관과 세계관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론과 그에 기반한 사회 모델들이 있습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성경의

메시지와 철학적 도구들, 이성(과학)의 발견과 역사 경험(지혜)의 도움으로 인간 존엄의 절대성과 인권들의 보편성, 양도 불가능성, 침해 불가능성 그리고 전체성을 천명합니다(2022. 8/28-9/10 주보 참조). 이러한 가르침을 ‘그리스도교 인본주의’라 부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동등한 존엄이 어느 정세에서나 다 확실히 인식되고 존중되며 보호받고 증진되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실이 있음” 목격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의 “존엄이 부정·조롱당하거나 짓밟히고, 기본적 권리들이 버려지거나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도 경험합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은 이런 현실들을 불의(不義)로 지적하면서, 그 불의가 왜곡된 인간관과 무자비한 수익 기반의 경제 모델로 증식된다고 밝힙니다(22항).

회칙은 왜곡된 인간관을 극단으로 드러내는 불의한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여성에 대한 실질적 차별(23항),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격하시켜 노예살이와 다름없는 삶을 강요하는 현실,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착취, 장기 판매를 위한 납치, 인신매매 그리고 범죄 조직의 활동 따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체 인류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공동 노력, 세계적 노력이 요구되는” 중대 사안입니다(23-24항). 🌐

나를 절망하게도, 환희케도 한 글쓰기

“얘들아, 잠깐! 30분만 말 걸지 말아줄래? 엄마 집중 좀 하게.” 그러자 아이들은 내게 말을 거는 대신 온갖 의태어를 소리 내어 말하기 시작한다. 글을 쓰던 나는 아까부터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막내의 “꽂차꽂차” 소리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택배 상자와 씨름하는 막내의 손에서 가위를 뺏어 상자 날개를 잘라준 후 다시 책상에 앉았다. 지금껏 내 글은 모두 이와 같은 방해 속에 쓰였다. 아이들 속에서 나는 실 새 없이 분주한 마르타와 차분히 집중하는 마리아를 오간다.

방해 공작이 심할수록 글을 완성했다는 기쁨도 컸다. 내 글엔 내가 읽고 싶은 내용이 담겨있어 좋았다.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했다가도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글, 삶의 매 순간 하느님이 함께하시므로 나는 끝내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걸 확인하는 글이 필요했고 스스로 그런 글을 만들었다. 한편 아이들과 남편, 부모님과 지인을 글 속에 등장시키면서 전지적 만족감을 느꼈다는 사실도 고백해야겠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부족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내용을 써도, 글이 되고 나면 나를 뽐내는 것으로 읽혔다. 글 속에서 나는 ‘뭔가를 아는 사람’이 되어 있는 반면, 상대방은 나만큼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상대방의 생각까지 내가 다 알 수는 없다는 핑계로 그런 거였지만, 사실은 우월한 위치를 선점해서 타인을 재단하는 쾌감에 젖어 있던 건 아니었는지. 생각하면 아찔하다.

미사 시간에 내 옆에서 주보를 펼쳐놓고 내가 쓴 글을 읽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전히 얼굴이 화끈거린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이들 뒤통수엔 ‘엄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 하는 질책이 담겨있는 것 같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듯 글로만 떠들어대는 사랑도 사랑이 아닐진대, 아직 삶이 되지 않은 사랑을 잘도 나불댔다. 글에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 써놓은 다음, 글과 삶의 괴리를 줄이겠다는 다짐으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당연히 다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삶과 유리된 글, 하느님 없는 하느님 이야기를 하느님 공허해지는 글 말고, 하느님과 삶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글을 쓰려면 기도와 행동이 필요하다. 더 많은 기도와 행동이 아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와 행동 말이다. 그리하여 이 글을 끝으로 주보에 글을 신는 기쁨을 내려놓게 되었다. 지난 7년간, 글을 쓴 다음 삶이 따라가길 반복했고 내겐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면 이제 삶을 충실히 반영하는 글을 쓸 필요성을 느낀다.

최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떠드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론 책상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글을 쓰고 싶다는 거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다룬 책 <전사들의 노래>를 읽으면서는 장애인 곁에 서야지 다짐했고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을 다룬 다큐멘터리 <수라>를 보면서는 피조물과 공동의 집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겠다 다짐했다. 글을 써서 투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 후반부의 목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확신의 발걸음을 떼진 못했지만 이렇게 자꾸 떠돌고 다니면 언젠가 내가 다짐한 일을 하고 있으리란 기대를 해본다.

일상에서 질문을 발견하고 거기 답하는 작업인 글쓰기를 직업으로 삼았고, 그렇게 질문과 응답을 반복하다 보니 내 삶을 향한 부름에도 응답했다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었다. 이제 내 삶이 진정 응답해야 할 부름을 듣기 위해 나아가간다. 때론 나를 절망시키고 때론 나를 환희하게 했던 글쓰기를 무기로 들고서. 🎯

정신후 블라시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작가, 글쓰기 강좌 <함께 쓰는 기쁨> 진행

그동안 <함께 가는 길>을 연재해주신 정신후 블라시아님께 감사드립니다. -홍보국-



교구장
동정

~22(수)	일본 선교사제 만남 - 일본 요코하마
23(목)	하늘가족 위령미사 - 백석동 성당
	병원사목 사제회의 - 교구청 회의실
24(금)	사제평의회 - 교구청 회의실
26(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미사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이번 주 성경 읽기

11/19(주일)~25(토) : 마르 16,12-20

이 구절을 한 주간 반복해서 읽고 쓰고 묵상합니다. 11/25(토) 한 달간 읽은 내용에 대한 해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교구
소식

CPE(임상사목교육) 봄학기 안내 - 병원사목위원회

내용 이웃과 자신을 위한 영적돌봄 교육훈련 기간 2/27~6/18, 매주(화) 16주간
 장소 행신2동 성당 비용 80만원
 인원 선착순 6명 문의 010-2235-2117 고종향 신부

<꾸다> 청소년 온라인 주보팀 6기 봉사자 모집

대상 청소년 온라인주보 제작에 관심이 있고, 열정적인 청소년 및 청소년부 교리교사
 활동 2024년 1월~7월 [약 7개월]
 내용 ① 주보 원고 작성 및 디자인 제작 ② 월 2회 회의(대면 또는 비대면 진행)
 접수 11/26(주일)까지
 문의 031-850-1459 청소년부 / 카카오톡채널 [UJB청소년사목부] 1:1 채팅

신청 ▶



제3차 어린이부·청소년부 교리교사 피정

일시 12/3(주일) 09:30~16:30
 장소 원효로 예수성심 성당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6길 22)
 내용 성지 순례와 묵상 기도를 통해 신앙의 깊이 더하기
 대상 교구 내 모든 어린이부·청소년부 교리교사, 지구 회장단
 인원 30명 신청 11/19(주일)까지
 문의 어린이부 031-850-1458, 카카오톡채널[UJB어린이사목부]
 청소년부 031-850-1459, 카카오톡채널[UJB청소년사목부]

참조 ▶



한남성서연구소 창립 25주년 학술 발표회

“말씀의 육화와 성경의 올바른 해석”
 일시 12/1(금) 10시~16:30 장소 신앙교육원(의정부시 신흥로 261)
 내용 1부 - 주원준, 박미경, 강지숙, 김선영 / 2부 - 김명숙, 송혜경, 강선남, 정태현 신부
 주최 한남성서연구소, 선교사목국
 문의 031-846-3467 한남성서연구소 (참가비 없음)
 ※ 중식은 제공하지 않으며, 개인컵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화]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교황 담화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토빗 4,7)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미사 · 피정 ▶▶

다락방 피정

초기교회공동체 체험을 통한 하느님 현존 체험 피정
일시: 12/8(금)~9(토) 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접수: 12/3(주일)까지 [선착순 30명]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한마음 기도영성학교 초급 7기

렉시오디비나 묵상기도와 이나시오 관상기도 배움터
일시: 12/15(금)~17(주일) 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접수: 12/3(주일)까지 [선착순 30명]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이해인 수녀 대림 특강 - 호평동 성당

주제: 사랑의 작은 길, 일상의 순례자
일시: 12/10(주일) 교중미사 후 11:30
장소: 호평동 성당 / 문의: 031-592-2554

3,4지구 성령기도회 월피정

일시: 11/24(금) 13시~16:30, 주교좌 의정부 성당
강사: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 (강의, 미사, 안수)
문의: 010-3790-0496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6지구 하루 피정

일시: 11/27(월) 09:30~16:30
장소: 백석동 성당 대성전
강사: 김재덕 베드로 신부 (대전교구)
미사: 이은형 디모테오 신부
문의: 010-5207-4419, 010-2994-2501

성전 재건 1박2일 피정

날짜: 12/1(금)~30(토), 매주(금)~(토) 철야기도
장소: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무료)
강사: 김종강 시몬 주교 특별미사, 김완식 외
진행: 고영민 안드레아 (찬양팀)
문의: 043-213-9103, 010-4400-1344

가정선교회 12월 피정 및 미사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 배광하 신부
12/2(토) 12:30~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성가정 영성 피정 - 박재찬 신부, 이현주 회장
12/6(수) 12:30~17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 맹진학 신부
12/16(토) 12:30~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2/8(금)~16(토), 1/5(금)~13(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역여행 이사야서II:
12/27(수)~29(금)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번 기도회

일시: 11/20(월) 12:30~17시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가정회복 은혜의 낮피정 - 고해성사, 상담

일시: 11/20(월) 13시~16:30 (말씀, 찬양)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11/24(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강사: 손동훈 세례자요한 신부 (인천교구)
문의: 010-2127-0032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자 월레미사

일시: 11/29(수) 14시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대상: 교정사목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031-856-0213~5 (전화, 문자 모두 가능)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 대림 피정

날짜: 12/2(토)~3(주일) [1박 2일]
장소: 원주 본원
대상: 만39세 이하 가톨릭 미혼 여성
문의: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교육 · 모집 ▶▶

요셉의원 직원 모집 - 서울 영등포 소재

대상: 치위생사, 치과 전담 간호사(간호조무사)
인원: 2명 (파트타임 지원 가능)
문의: 02-2634-1760 요셉의원
※ 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서강대학교 -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영성 강의

일시: 11/27(월) 14시~16시 (강의와 미사)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무료)
주제: <상처와 용서> 다시 보기
강사: 송봉모 토마스 신부 (예수회)
문의: 02-705-4711

한마음 대림특강

제1강: 대림 시기에 대한 개괄적 교리
제2강: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기
일시: 12/5(화) 15시, 9(토) 17시, 12(화) 15시, 16(토) 17시
장소: 한마음수련원 본관 / 회비: 총 4만원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성가 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시스띠나음악원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4 전기(주간) 모집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 (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석·박사통합: 신학,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접수: 11/27(월)~12/4(월) / 전형일: 12/9(토)
문의: 02-705-8668, gsot.sogang.ac.kr

별내 성당 사무원 모집

자격: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인 교우, 사무행정, 회계업무, PC(한글, 엑셀, PPT) 사용 가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접수: 12/2(토)까지 [개별 통보 및 면접]
주소: 경기 남양주시 송산로 121 별내 성당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톨릭평화방송 cpbc소년소녀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오디션: 12/10(주일) 14시
장소: 가톨릭 평화방송 B1 합창단실
대상: 첫영성체를 받은(24년 예정) 초2~초6 가톨릭신자
접수: 12/7(목)까지 (이메일 접수)
문의: 010-2650-8014 cpbc소년소녀합창단
※ 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주교좌 의정부 성당 모니카 성가대(교중) 단원 모집

대상: 의정부지역 거주 신자 (60세 이하)
성가대 경험자 우대
문의: 010-6802-8014 단장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11/26(주일) 09시	서울 분원 (서울 장충동)	010-8353-2323 (문자 문의)

가좌동 성당(일산) 관리인 모집

자격: 자동차 1종 보통 면허소지자
서류: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개별 통보/ 제출 서류 반환 불가
문의: 031-923-2693 가좌동 성당

1년에 읽는 구약성경 - zoom

기간: 1월~12월(주일) 16시~18시
(12만원 x 4회)
지도: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문의: 010-4598-6912

안내 · 기타 ▶▶

늘푸른 자활의집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green1004.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 야간진료 (화 18시~20:30)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제주 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연말연시: 12/29(금)~1/1(월) 눈꽃산행
자연순례: 12/1(금)~3(주일), 12/15(금)~17(주일),
1/20(토)~22(월)
접수: 064-756-6009, 02-773-1463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채용

분야: 활동운영팀
업무: 청소년활동 지도
접수: 1/12(금)까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고

꼬메스 심리상담소 - 도미니코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 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 1회)
상담자: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이시돌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한라산: 12/8(금)~10(주일), 12/16(토)~18(월)
연말연시: 12/30(토)~1/2(화) 해님이, 해돋이
눈꽃산행: 1/6(토)~8(월), 1/12(금)~14(주일)
1/19(금)~21(주일), 1/27(토)~29(월)
접수: 064-796-4182, 02-773-1455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20(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35만원)
3/14(목) 프랑스 성모성지 및 수도원 순례(13일 560만원)
3/15(금) 이스라엘, 요르단(12일 550만원 KE)
4/10(수)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13일 520만원 KE)
5/15(수)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3일 560만원 KE)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심포지엄

일시: 11/24(금) 10:30~16:20
장소: 명동대성당 고스트홀
주제: 가톨릭 학교 교육의 정체성, 자주성, 공공성
문의: 02-460-7625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4년 하반기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15(목)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2/19(월) 체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11일
2/26(월) 일본(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4/1(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18km 12일
4/17(수) 이탈리아 완전 일주 11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 세부 일정은 www.catholictravel.co.kr 참조

교구 성지순례 / 왜관수도원 전례, 탐방

2/17(토)~19(월) 수도원, 대구
3/1(금)~4(월) 수도원, 부산, 마산
3/14(수)~17(토) 전주, 광주
4/20(토)~24(수) 울릉도, 독도, 수도원
출발: 서울 명동(대형 버스)
5/15(수)~28(화) 독일수도원, 바티칸, 이탈리아
(수비아코) - 인천공항 출발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운영 양로원 기금
가격: 된장(1kg) 2만원, 청국장(500g) 1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 가능)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DIocese of Uijeongbu

후원

100원의 행복충전소 후원금 10억원 돌파

대건카리타스 100원의 행복충전소
모금 누적액 총 1,005,937,743원 (2023.10.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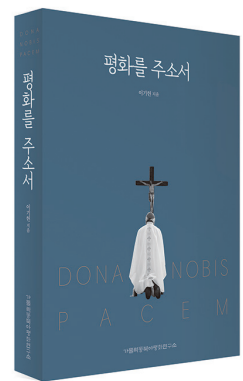
작은 동전 하나에 선한 마음들이 모이고, 행복충전원분들의 노고와
봉사가 어우러져 놀라운 결실을 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
들의 행복을 향한 우선적인 섬김과 돌봄을 몸소 실천하시는 행복충
전원 및 행복충전소 후원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100원의 행복충전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031-850-1483 대건카리타스

신간

평화를 주소서

한반도 평화 사목의 기록

저자: 이기헌 베드로 주교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화 활동은 내 평생의 소명이었습니다.”

362면 | 18,000원 | 문의 031-850-1502 민족화해위원회

※ 수익금 전액은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의 발전 기금으로 쓰입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11월 13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자비의 특별 희년 폐막을 앞두고 매해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로 지낼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일주일 뒤인 11월 20일에는 자비의 특별 희년 후속 교황 교서 「자비와 비참」(Misericordia et Misera)에 서명하면서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을 거행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성당과 순례지에 있는 자비의 성문 폐막에 즈음하여 저는 이 특별 성년의 또 다른 가시적 표징으로 교회 전체가 해마다 연중 제33주일에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을 거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21항). 이에 따라 가톨릭교회는 2017년부터 연중 제33주일에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지내기 시작했고, 올해는 일곱 번째가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해마다 이날의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이번 담화문의 제목은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토빗 4,7)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부분에선 긴 여행을 떠나는 아들 토비아에게 영적 유언을 남기는 토빗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토빗은 유배를 떠나왔고 눈까지 멀게 되어 가난의 이중고를 겪지만, 자선과 선행,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통이 자선을 베푸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닥친 불행은 "주위에 있는 수많은 형태의 가난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날 우리가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섬세하게 헤아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5-37 참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자선을 실천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소명입니다. 가난하고 배척받는 이들을 향해 관대하고 이타적으로 베푸는 봉사는 하느님 나라 현존의 표징이 됩니다. 또한 반포 60주년이 되는, 성 요한 23세 교황의 회칙 「지상의 평화」의 일부를 인용하며 모든 인간,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은 생존, 육신 전체, 생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특히 양식, 의복, 주거, 숙식 등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의사들의 치료와 그 외 정당한 사회적 봉사 등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11항).

이어서 최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가난, 예를 들어 전쟁의 상황과 그 안에 놓인 어린이들, 가난을 양산하는 새로운 투기, 노동계 안에서 빚어지는 윤리적 혼란,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을 앗아가는 문화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수사적 과장이 아닌 인격적 관계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식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7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담화문에 소개된 아기 예수의 테레사 성녀의 말씀을 조용히 가슴에 새겨봅시다: "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

행주성당



성모몽소승천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031-974-1728	사 무 실
031-972-8537	팩 스
sd.uca.or.kr/hjsd1909	홈 페이지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토 요 일	17:00 토요일 저녁주일미사
주 일	09:00
	11:00 교중미사
평 일	11:00 월,화,수,목,금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後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18일 (클레멘스): 유한형

(클레멘시아): 정지윤

22일 (세실리아): 이선우, 김앵란, 이영자, 변수정

전례

■ 12월 성시간

일 시: 12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 12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12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 전대사 미사

일 시: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는 행주 성당에서 미사 참석을 하시면서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학생 학비 후원 2차 헌금

다음 주일에는 의정부교구 신학생들의 학비 후원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중 미사 예물 봉헌

11월 19일	권우석(라파엘), 정윤정(라파엘라)
11월 26일	최성권(야고보), 김민숙(골롬바)

본당공지

■ 12월 봉성체

일 시: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11월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11월 26일 일요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자동 심장 충격기 구매

* 박정희, 박달영, 박진여, 이한준, 유윤재, 배성은, 이동준, 선길자, 신은석, 이복순, 장영진 이상의 분들께서 2,000,000원을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지난주와 더불어 총 3,230,000원을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관심을 가져준 교우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성 (11월 06일 ~11월 12일)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5건	450,000원
주 일 헌 금		683,000원
평신도 주일 2차		433,000원

■ 감사헌금

유순애 100,000원